

“함께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사회학과”

서울대 사회학과 소식지

VOL

22

2018학년도
2학기

NEWSLETTER
DEPARTMENT OF
SOCIOLOGY,
SNU

[http://
sociology.snu.
ac.kr](http://sociology.snu.ac.kr)



CONTENTS

01 ▶ 2018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선발 | 02 ▶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소식 | 03 ▶ 졸업생 감사의 말
04 ▶ 동문걷기대회 소식 | 05 ▶ 학부 전공연수회 | 06 ▶ 학부 <동아시아 사회> 수업
07 ▶ 도시락과 사회학/제3회 단보 심계진 장학기금 수혜자 선정 | 08-09 ▶ 동문 인터뷰 | 10-11 ▶ 교수 연구 소식 | 12 ▶ 학과/학부 소식
13 ▶ 대학원/동문 소식 | 14 ▶ 명예교수 소식 | 15 ▶ 사회발전연구소 소식 | 16 ▶ 발전기금 출연 및 악정현황과 사용내역



2018년 6월 6일 사회학과 동문가족 걷기대회에서

2018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선발

2018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박사과정 정우연, 조하영, 장문정

석사과정 황다솜, 최종식, 박소현, 최성태, 최윤석, 유민수, 이두희, 정유진, 최지수, 춘 주이, 양미연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2018년 8월 29일(수) 오후 2시에 사회과학대학 신양관 407호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1명, 석사 5명, 박사 2명 등 총 18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학사졸업생 중 성적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상백우등상은 김철선(학부 12), 우수 논문상인 상백논문상은 최중식(학부 12)이 받았다.
동문회장상은 재학기간 중 다양한 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낸 점이 인정되어 김해니(학부 13)에게 수여되었다.

2018학년도 후기 대학원 졸업생 명단과 논문 제목

박사학위 논문

임재성 한국 헌법재판소의 전략적 사법적극주의 (지도교수 : 정진성)
로버트 해밀튼 (Re)Placing Sexualities: Transnational Imaginations and Reconstituting Identity (지도교수 : 정진성)

석사학위 논문

최정배 한국 사회학 입문서에서 나타나는 사회학 정체성의 변화 (지도교수 : 송호근)
왕지아 Differences in gender role attitudes between native Swedish and immigrants (지도교수 : 정진성)
김지윤 경제적 불안감과 세대별 효과가 반이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 김석호)
신민선 노화방지의학의 지식사회학적 연구 (지도교수 : 서이종)
워드로보트피터치숨 위계에서 시장으로: 북한 수산업 부문에서의 거래비용과 배태된 시장의 등장 (지도교수 : 장덕진)

졸업식 축하

김병용 사회학과 동문회장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년 졸업식 때만 해도 사회가 어렵고 어지러운 상황이었으나 그래도 불확실성은 덜 했는데 요즘은 변화무쌍한 국제 정치 경제적 상황에 자연 환경적 변화마저 더해져 예측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4차 산업 혁명의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마주하게 될 후배님들에게 생각해 볼만한 화두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불교 왜색화가 진행되던 시기 선의 불씨를 되 지핀 경허 선사 의 제자 두 분 이야기입니다. 수월스님이 대화 도중 갑자기 옆에 놓인 숯불 그릇을 집어 만공스님 얼굴 앞에 들이대고 묻습니다. "여보게, 만공, 이것을 숯불 그릇이라고 하지 말고, 숯불 그릇이 아니라고도 하지 말고, 한마디로 딱바로 일러보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이나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만공스님은 별떡 일어나 그릇을 낚아 채 마당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수월스님은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월스님이 내민 것은 생각의 틀 소위 프레임을 건 것이고 만공스님이 깨버린 것은 틀 자체였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생각의 틀은 어떠한지요? 개인적인 고집이 스스로를 위축시키지는 않는지... 사회에 나

서는 마음가짐이 기존 조직 적응에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적극적으로 상상하면 이를 수 있는 변환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인간 행위에 대한 다각적 사고, 변화에 대한 수용성, 다양성에 대한 이해 등이 남들 하고는 다릅니다. 특히 본질에 대한 접근 사고방식이 앞서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생각의 틀을 넓혀 격변하는 시대에 기존 질서의 틀이나 고정관념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을 해석하고,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가 선도하는 전방위적 혁신으로 바뀌질 세상을 예견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주도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직한 사고와 행동으로 신뢰를 구하고, 홀로 서는 강한 독립심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가치를 우선하는 인간상을 기대합니다.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당히 사회에 나서되 부디 스스로를 귀히 여기고 또한 정진하시어 사회와 국가의 훌륭한 동량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동문회 가입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정근식 사회학과 교수

18명의 청춘, 졸업을 축하하며

김대진, 이진욱, 민준호, 조승규, 황세희, 김상연, 김철선, 김태운, 최윤석, 최중식, 김해니.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생들의 이름입니다. 최정배, 왕지아, 김지윤, 신민선, 워드로보트 피터치숨.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들의 이름입니다. 임재성, 로버트 해밀튼.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들의 이름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또한 귀하고 똑똑한 자녀들을 4년여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사회학과에 맡겨 주시고, 또 그만큼 노심초사하신 학부모님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근래에 학기마다 한 번씩 졸업식을 거행합니다만, 그 때마다 학과의 교수로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서울대학교 사회학과가 쌓아온 명예를 늘 생각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과는 한국사회

의 발전과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과 함께 교수로서 늘 간직하고 있는 자성의 질문도 있습니다. 지난 기간에 우리 학생들의 꿈과 고뇌를 얼마나 이해하고 도움을 주었을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몇몇 졸업생들의 노력과 성취는 비교적 잘 알지만, 몇몇 졸업생들의 고민과 좌절은 잘 모르겠구나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2018년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더위 때문에 폭염사회와 냉방복지라는 새로운 도전적 개념을 사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곧 가을이 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면서도 무엇인가 쌓이고, 또 항상 새로워지는 것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입니다. 졸업생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가을과 함께 새로움이 더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생 감사의 말

임재성 (박사 09)



2009년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딱 10년 만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 10년 중에 로스쿨에 다니고, 이후 변호사 일을 하는 외도가 있었지만, 그 외도 덕분에 조금 더 풍부한 법사회학 박사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지도교수님, 논문 심사 과정에서 따뜻한 격려와 함께 매서운 질책으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신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프로포절 발표 때 장덕진 교수님께서 전해주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메모는 지금도 제 컴퓨터 모니터 옆에 붙어있습니다. 교수님들 덕분에 박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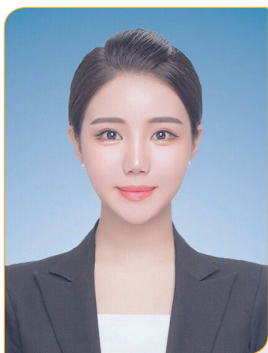
다른 이들과 비교할 때 전 여러 학교를 다닌 편입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석·박사를, 그리고 인하대 로스쿨까지. 대학을 3군데나 다닌 셈인데, 모교가 어디냐고 묻는 질문에 서울대라는 답변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서는 매달 노벨상 수상자급 학자들의 강연이 이어지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는 학기 중 변변한 대중강연 한 번 열리지 못합니다. 학벌사회의 가장 정점에 있는 대학을 모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의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하는 일이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전공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망설임 없이 ‘사회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역사와 변화를, 구조와 주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제4·3 재심사건 등 많은 공익사건에 참여하고 있는데, 선배 변호사님으로부터 들은 가장 기쁜 말이 있습니다. “임재성은 사회학을 공부를 해서 이런 서면을 쓸 수 있다.” 사회학을 공부한 변호사로 머물지 않고, 좋은 사회학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선 (석사 16)



저에게 있어 무언가를 공부한다는 것은 나 바깥에 있는 동떨어진 대상을 연구한다기보다 나에게서 시작된 작은 질문을 내가 있는 세상과 연결해 나의 언어와 시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지와 열망만 있었지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풀어나갈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족한 것들을 메워가는 과정이 혼자서 해야 하는, 지난하고 외로운 과정이 될 것 같아 많이 좌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처음 생각했던 바와 달리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갈수록 곁에서 같이 걸으며 제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응원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작은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 주고 더 좋은 질문으로 발전시키게 의견을 주었던 분들, 연구에 대해 스스로 확신이 없을 때, 그 가치를 알려주었던 분들, 나은 방향으로 질문의 답을 구할 수 있게 가감 없이 의견을 주었던 분들, 마지막으로 흔들릴 때마다 곁에서 응원해주었던 분들. 이 모든 이들이 있었기에 값지게 석사과정을 보내고 졸업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가득한 졸업논문이지만, 겸손한 자세로 제가 던진 작은 질문을 놓지 않고 다듬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헌신적으로 가르쳐 주신 지도교수님과 교수님들, 대학원 동기, 가족,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김해니 (학부 13)



세상이 한없이 궁금하던 저에게 사회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을 이야기하는 언어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회학 수업은 매 시간마다 저의 시야를 트이게 해주었고 말문을 트이게 해주었습니다. 사회학과 교수님들께서는 어쩔 때는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저의 인생을 함께 이야기해 주시다가, 어쩔 때는 제가 감히 닿지도 못할 풍부한 시각으로 세상을 분석하며 수많은 영감을 주셨습니다. 사회학과 학우들은 제가 겪어본 그 어느 집단보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분명 한국의 미래는 지금보다 밝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사회학과 교직원분들께서는 사회학과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따스히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공간을 떠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사회학도로서,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명감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수님, 학우들, 교직원분들, 그리고 저의 가족. 모두 감사드립니다.

동문걷기대회 소식

2018년 6월 6일 오전 10시 버들골 풍산마당에서 사회학과 94학번 동문들의 주최로 동문걷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동문걷기대회에는 180명의 사회학과 학생, 학과 교수, 동문회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캠퍼스 걷기와 가족 장기자랑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서로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이번 동문걷기대회 행사를 담당하여 기획하고 진행한 정주영(94학번) 동문의 후기이다.



동문걷기대회 후기 | 정주영 (94학번)

안녕하십니까, 94학번 정주영입니다. 금년도 사회학과 동문걷기대회 행사 후기 글을 부탁 받고 행사를 준비하며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기회로 그리고 올해 이후 행사 준비할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자 적어봅니다.

우리 사회학과는 매년 6월 6일에 사회학과 동문걷기대회라는 이름의 학교 방문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 6일 행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행사일 5주 전쯤 동기 네댓 명과 간단한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이후 두 세 차례 준비모임을 더 가졌습니다. 지방과 외국에서 거주 중인 동기들이 많아 비용이나 참석 여부에 대한 걱정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동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금전적 협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행사 기획과 관련하여 행사 주관하는 94학번 동기들에게도 그리고 행사에 참석하실 선후배님들에게 “참석하길 잘했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멋있고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어보자는 것을 기획의 기본 틀로 잡고, 최근 5년간 행사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한다. 잔치의 핵심은 역시 먹거리, 음식과 음료, 주류 준비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둘째, 진수성찬도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식사시간, 공연관람시간이 불편하지 않게 의자, 탁자 및 테이블 별 햇빛 가리개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동선, 좌석의 레이아웃, 심미적인 요소도 고려하고자 했습니다. 식사 전 제공 드린 통돼지 바비큐 요리와 생맥주는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셋째,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동문 분들에게 시간이 아깝지 않게 해 드려야 한다.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퓨전국악 공연과 마술쇼, 그리고 어린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비누방울 체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잔치의 핵심인 장기자랑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넷째, 참석하신 모든 동문가족이 양손 가득히 선물을 들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기념품과 경품을 풍성히 준비하고 후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사의 기억을 참석하신 동문들도 참석하지 못한 동문들도 공유할 수 있게 하자. 전문사진사를 섭외하여

행사의 순간 순간을 담도록 하였습니다.

겸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말이지만, 열심히 준비했고 그 어느 행사와도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이 잘 치렀다고 스스로 칭찬해 봅니다. 이런 칭찬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문분들이 보여준 환한 웃음과 즐거운 박수들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즐겁게 동참해 주신 동문 분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사 같이 열심히 준비한 심재만, 최성훈, 박형만, 최정준, 전성호, 박혜원, 천인성, 행사 당일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준 강길연, 김철호, 고영경, 김인수, 참석은 못했지만 지지와 격려를 보내 준 김대현, 김선일, 김수환, 김현식, 민보희, 서호철, 성준규, 송정혜, 신택진, 이동훈, 임주혁, 장진호, 정우진, 정종현, 정지욱, 정진아, 조정우, 최용준, 황광현, 연락은 안되지만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김정진, 노승철, 마경훈, 정민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 준비하는 동안 총무의 전단적 행위를 묵묵히 지지해 준 94학번 동기회장 김태훈 고맙고 사랑한다.

모자란 후배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신 김병용 동문회장님, 행사계획 및 준비상황 같이 확인해 주신 조성원 동문회 사무국장님, 후원금 기부로 도와주신 사회학과 비즈니스네트워크(사비넷) 동문 선배님들과 조영훈 사비넷 총무님, 행사 풍성히 치르라고 물품 후원해주신 홍석진 선배님, 김대진 선배님, 바쁜 시간 쪼개 행사 준비 도와주신 임웅수, 김은옥, 임재진 선배님 고맙고 사랑합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물품 보관할 공간 기꺼이 제공해주고 풍산마당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신 박경숙 학과장님, 박명규 교수님, 정일균 교수님, 사회학과 조교실 신아름 조교, 행사 당일 현장 열심히 지원해 준 이동우, 박상욱 등 사회학과 후배들 역시 모두 고맙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드리진 못하지만 자리를 빛내 주신 180여 분의 동문 선후배님들과 동문 가족 분들도 사랑합니다.

올해 행사 초대를 드리면서 인용했던 論語의 문구를 적으며 후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를 갖추면서 조화롭게 치러낸 행사였기를 소망해 봅니다.

“禮之用 和爲貴”

사회학과 94학번 정주영 드림

학부 전공연수회

2018년 4월 6일에서 4월 7일까지 1박 2일간 사회학과 학부 전공연수회가 진행되었다. 인천에서 진행된 이번 전공연수회는 '개항장'으로서의 인천과 대한민국의 이민사, 그리고 화교들의 삶과 고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에는 차이나타운, 인천개항박물관, IBC월드게이트센터를 방문하여 견학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둘째 날에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을 방문하고 견학하였다. 숙소에서는 주제 토론 및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었다. 학부생과 학과 교수 등 30여명이 이 전공 연수회에 참여하여 사회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참가자 권동훈 (학부 18)학생의 후기이다.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버팀목이 되기를 - 사회학과 전공연수회를 다녀와서 권동훈 (학부 18)

대학에 입학하여 사회학과 학생으로서 시간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학과 전공연수회'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매년 개최되는 행사라는 것과 그 의의를 알고 있었기에 별 다른 고민 없이 전공연수회 참가를 신청했다.

우리는 학교에서 출발해 가장 먼저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갔다. 그 이름은 익히 들어봤지만, 실제로 가 본 적은 없어 호기심이 아주 컸다. 안내하시는 분의 설명을 통해 이곳의 역사와 이곳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생활 방식에서부터 지금도 겪고 있는 갖가지 고초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화교들이 다니는 학교와 개항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까지 둘러보면서 차이나타운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민주노총 인천국제공항지부에 방문하여 지금 진행 중인 투쟁이 왜 시작되었으며, 노동 현실과 제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노조 활동가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동 문제에 어렵듯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이며 실제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기반적인 고용조건 등 문제적 현실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관해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를 느꼈다.

숙소로 이동해서는 짐을 풀고 팀을 나눈 후에 우리가 차이나타운과 민주노총 공항지부에 방문하여 보고 들은 내용과 함께 발제문을 읽어보고 몇 가지의 생각할 거리에 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공연수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회학적 시선으로 현실의 모습과 문제점을 파악했다.

시간이 지나 우리는 전공연수회의 꽃(?)인 바비큐 파티를 했다. 교수님, 조교님과 함께 고기를 구우면서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유쾌하게 웃으며, 다가가기 어려울 것이라

는 선입견을 깨뜨릴 수 있었다. 이어진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즐거움의 연속이었다. 날카롭게 토론을 하며 의견을 주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노래를 듣고 제 목을 맞히고, 교수님이 대표 선수

로 출전하셔서 젓가락으로 쿵을 빠르게 옮기기 위해 애쓰셨다. 함께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훨씬 더 친해지고 따뜻함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전공연수회 참가자들과 교수님, 조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어야 할지, 혼자서 고민했었는데 레크리에이션 때와 마찬가지로 이내 분위기가 따뜻해졌다. 교수님들께서는 지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이나 각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경청해주셨고 알지 못했던 교수님의 견해나 삶의 경험들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따뜻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부끄럽게 표현하자면, 버틸 힘을 얻은 힐링을 했다고나 할까. 그날 밤 거실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마음 속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을 먹고 우리는 마지막 일정으로 계획된 한국이민사박물관에 갔다. 역사 공부를 하면서 스쳐 들은 많은 존재들이 겪었던, 혹은 지금도 겪고 있는 아픔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절감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차이나타운의 가이드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연수회 참가자들끼리 나눴던 이주민에 대한 토론 내용이 떠올랐다. 박물관을 관람하며 무엇인가를 배운 듯한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하고 마음이 아왔다.

이민사박물관을 끝으로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서울로 돌아왔다. 1박 2일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보고 들으며 배운 것은 무척 많다고 느껴졌다. 아직까지 사회학이 정말 나와 잘 맞는 전공인지, 사회학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전공연수회를 통해 느낀 것은, 사회학이란 우리가 발 디디고 서 있는 현실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또다시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좌절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짧지만 밀도 있는 경험들과 여러 사람과 공유했던 소중한 생각과 시간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소해 보일지라도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바라본다.

끝으로 전공연수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에게 이 글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년에도 꼭 참여하기를 결심해본다.



학부 <동아시아 사회> 수업

2018학년도 1학기 학부 <동아시아 사회> 수업(박경숙 교수, 공석기 교수)에서 4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립대만대, 교토대와 총 6차례의 교류 강의를 진행했다. 이는 국립대만대, 교토대, 서울대가 함께 진행해온 <동아시아 주니어 워크숍(East Asia Junior Workshop)>이 정식 수업 과정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기존의 참여 대학교들 외에 일본 큐슈대가 추가로 포함되어 학생들의 공동교류와 해당 대학의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는 공동 강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각 대학은 화상 강의를 통해 대만과 일본, 한국의 노동과 불평등, 이주 문제에 대한 강의를 교류했다. 이 중 5월 21일과 5월 28일에는 사회학과의 권현지 교수와 김석호 교수가 각각 Labor and Inequality in Korea 와 Migration in Korea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본 수업을 통해 학부 수강생들과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대만과 일본의 학자들이 소개하는 각 나라의 현황을 접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험과 비교사회학적 시각을 제공하였다.

<동아시아 사회> 수업과 연계되어 2018년 7월에 큐슈대로의 현장답사가 있었으며, 수강생들은 또한 8월 18일에서 8월 22일까지 국립대만대에서 열린 연례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2018 East Asia Society Workshop in National Taiwan University 후기 | 손소원 (자유전공학부 사회학전공)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써 2018 EAJW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하는 여행을 좋아한다. 그렇기에 단순히 관광객끼리 명소를 순회하는 여행보다도 현지에서 사람을 사귀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여행을 더욱 즐기는 편이다. 내가 살던 곳과 사뭇 다른 사회를 보며 떠오르는 질문을 묵히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과 문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사회학과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과 인연이 2번 닿았다. 지난해 겨울에 '동아시아 사회변동 현장학습' 강의를 통해 대만 진먼과 타이난에 다녀오고, 이번 여름에 '동아시아 사회' 강의를 들으며 대만 타이페이를 방문했다. 그때는 대만 성공대학생들과 함께 냉전체제 속 대만과 한국사회의 변화를 조망했다면, 이번에는 대만 국립대학생, 일본 교토대학생들과 같이 동아시아의 이주와 노동 문제를 이야기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냉전체제가 조성한 역사, 정치, 문화로부터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겨울 현장학습 경험은 이번 워크숍에 많은 영감을 줬다. 특히 대만의 정당정치와 민주화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냉전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공유할지라도 이를 소화하는 방식이 다른 한국과 대만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물론 이는 공식적인 토론 주제였을 뿐, 워크숍 쉬는 시간, 타이페이 투어, 그리고 식사시간에 이루어진 대화주제는 훨씬 더 풍부했다. 여성, 성소수자, 유교문화, 청년, K-POP 등 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의 공통된 기반과 시각차를 확인하는 대화들이 자유로이 오갔다. 해당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면 던질 수 없는 질문과 대

답들이 오간 소중한 시간이었다. 심지어 이번 서울대팀의 경우 독일, 호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더욱 다양한 국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국과 동아시아를 비교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서양을 비교할 수 있다니 이런 값진 기회를 준 서울대 사회학과에 감사를 표한다.

East Asia Junior Workshop에서는 '한국 시리아 난민과 예멘 난민 유입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론과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연구였지만, 더 알고가고 싶은 주제들을 제공해 준 연구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더욱 정교하게 뉴스를 분석할 수 있을지, 뉴스 분석을 통해 확인한 프레임을 한국 사회 맥락과 어떻게 연관 지어 설명할지 고민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 한국사회 이주문제를 앞으로 공부해 볼 예정이다. 대만대학생들이 안내하는 시내 투어에서 난지창에 다녀오며 노인 주거문제에도 관심이 생겼다. 타이페이 난지창에 사는 노인들과 서울 쪽방촌에 사는 노인들의 삶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알고 싶어졌다.

언제나 질문과 대답에는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 같다. 지난 겨울 타이난에서 던진 질문들 중에 이번 여름 타이페이 중정기념당과 2.28 평화공원에서 찾은 대답들이 있다. 이번 워크숍과 교류여행을 통해 또다시 새로운 질문을 많이 쏘아 올렸다. 혼자서는 답할 여력이 좀 부족하니 내년 EAJW를 다시 찾아와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 쏘아 올린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고 싶다.

도시락과 사회학 / 제3회 단보 심계진 장학기금 수혜자 선정

사회학과 대학원 자치회의 주도로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도시락과 사회학'의 2018학년도 1학기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학원생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자신의 연구관심을 나누고 소통하는 행사인 '도시락과 사회학'은 두 번째 학기를 맞아 '고통과 배제의 사회학'을 주제로 6차례의 강연을 열었으며, 2018년 6월 18일에는 한 학기의 행사를 마무리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사회 구조적 배제와 차별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를 대주제로, 일본군 '위안부', 도시빈민, 형제복지원 수용인, 한센병 환자, 장애인, 세월호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기회를 가졌다. 아래는 참가자 윤병훈(석사17) 학생의 후기이다.



'도시락과 사회학' 후기 | 윤병훈 (석사 17)

지난 학기에 “사회학과 대학원 지식공동체의 편안하면서도 진지한 소통의 복원”을 표방하며 시작되었던 '도시락과 사회학' 행사가, 이번 학기에 “고통과 배제의 사회학”이라는 뚜렷하면서도 시의성 있는 축을 중심으로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학기의 여섯 차례의 발표들 중 저는 세월호와 한센인, 도시빈민, 장애인을 다루었던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모든 발표가 마무리된 이후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였습니다. 저에게는 특히나 모든 발표자분들이 함께 대주제인 사회적 고통과 배제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답했던 라운드 테이블이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제를 통해 공히 사회구조적으로 배제되거나 차별받아온 사람들에게 대해 고민을 밀어붙여온 연구자분들의 상이한 관심이 이루어내는 풍경을 바라보는 일은 막 대학원에서의 첫 해를 보낸 저에게 여러모로 놀랍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학기의 발표들도 좋았지만, 보다 짜임새있는 구성과 유려한 진행으로 돌아온 이번 학기의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도시락과 사회학'이 사회학과 공동체를 대표하는 행사로서 궤도에 오른 듯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을 많은 선배님들의 고민과 노력을 짐작만 할 뿐인 저로서는 아무런 노력 없이 소중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저도 언젠가 무언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약할 뿐입니다. 저와 같은 초심자가 이러한 기약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도시락과 사회학'이 저에게 심은 하나의 의미이자 약속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일어서야했던 적도 있었지만, 연구자분들의 고민들과 서로에게 건네는 조언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감사한 점이었습니다. 좋은 연구자분들께는 연구를 발표하고 공유할 자리를, 저와 같은 지방생에게는 좋은 연구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여러 선배님들의 오고가는 이야기들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고민하고 기획하고 진행해주신 선배님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학과와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무임승차자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 민망하지만 다음 학기에도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는 심계진 천마콘크리트공업(주) 대표 이사의 뜻에 따라 설립된 <단보 심계진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평소 한국 인문 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한 인재 발굴과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온 심계진 대표 이사의 장학 정신에 따라 장학기금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한국, 아시아,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어온 근현대의 제반 사회현상을 문화적,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대학원생의 연구를 지원한다. 올해에도 사회학과 박명규 교수, 박경숙 교수, 김홍중 교수와 심보선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로 구성된 단보 심계진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회 <단보 심계진 장학기금>의 수혜자가 박사과정 전원근(박사 10) 학생으로 선정되었다.



단보 심계진 장학기금 선정 소감 | 전원근 (박사 10)

다들 잘 아시듯이,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은 만성적인 생활고와 심리적 위축을 겪습니다. 졸업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 집중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경제적 상황은 그렇게 하계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현재의 대학원생들은 끊임없이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심리적 위축을 겪기도 합니다. 졸업논문의 작성이 길어지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대학원 생활 동안 조교와 아르바이트 등 한시도 일을 하지 않은 때가 없었으며, 대학원 밖의 친구들과 처지를 비교하게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2018년 <단보 심계진 장학기금>에 선정되어 잠시나마 연구와 논문 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장학금을 출연해주신 심계진 대표 이사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마콘크리트의 심계진 대표 이사는 1980년대부터 보기 드문 여성 경제인으로서 경영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신 분입니다. 불교신자로서 근검절약하며 오랜 기간 한국사회에서 사회공헌과 기부를 이어왔으며, 평소 인문사회과학에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왔습니다. <단보 심계진 장학기금> 또한 그러한 심계진 대표 이사의 평소 신념과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설립된 것으로, 힘든 학업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학원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학원생들이 이러한 기회를 얻는다면, 아카데미 전체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8년 3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에 조교수로 부임한 김한상 동문(박사 07)과의 인터뷰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친 김한상 동문은 한국 근대 영화들의 담론구조와 이들이 제작되고 소비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역사사회학과 문화사회학에 걸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신진연구자다. 지난 8월 23일 김한상 교수를 만나 그의 학문적 관심의 형성과정과 연구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후배 사회학도들에게 전하는 조언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부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역사사회학, 문화사회학, 영상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한상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쳤고,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와 Rice University 등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있다가 올해 3월부터 아주대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사회학이라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연구관심 분야에서

영화를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을 해오고 계신데

이와 같은 학문적 관심을 형성하게 되신 과정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학부 생활을 할 때부터 영화를 많이 좋아했어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약간 매니아에 가깝게 영화를 좋아했었고, 입학해서는 영화를 토론하며 함께 향유하는 활동들을 하고 싶어서 영화 학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생회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죠. 사실 학부에서의 전공은 독문학을 했었기 때문에, 독문학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온 연극 이론을 활용하는 공부를 이어나가기 위해 독문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고려해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학부 생활 동안 학회활동을 하고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식민지 시대 사회운동이라던가, 평화 군축과 같은 문제의식에 대해 생긴 관심이 발전되어서 사회학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사회학과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러한 관심이 연결된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영화를 볼 때에도 미학적인 것이나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지만 그 영화가 사회적으로 놓인 맥락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학과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영화와 사회학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서는 제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야인 역사사회학, 문화사회학, 영상사회학에 대한 관심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연구 관심을 형성하게 된 것 같아요. 영화를 비롯한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져왔던 애착과 갈증이 있었고, 90년대 중반의 대학사회에서 지내면서 문화를 반성적이면서도 실험적으로 사유하던 당시의 분위기, 영화 분야에서 시네마테크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던 비판적이고 적극적인 영화 소비의 문화에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2005년부터는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프로그램에

로 일하기도 했어요. 그런 과정들이 제가 사회학을 선택했던 계기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접했던 많은 비판적인 사유들, 학교 바깥에서 접하게 되었던 문화비평 강좌들이 저를 사회학적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로서 일하면서는 아카이빙이라는 것이 과거의 사실에 대한 단순한 집적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재구성해서 현재와 대화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관심이 사회학으로 돌아오면서 역사사회학적으로 영화를 바라보는 연구의 방향을 구성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서 진행해오신 지금까지의 연구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를 지금의 연구들로 가장 강하게 끌어당긴 영화는 ‘팔도강산’이라는 제목의 60년대 선전영화인데, 6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두 번째 대선을 준비하면서 공보부를 통해 사실상 제작한 블록버스터급의 선전영화예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초호화 캐스팅으로 정부를 선전하는, 당시에 아주 성공적이었던 선전영화죠. 이러한 영화를 통해 그 시기를 지금까지도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위대한 시기로 기억하게 하는 멘탈리티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관심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문화사회학적인 동시에 역사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그 영화를 분석하면서, 그 시기 이전과 이후로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과 주연배우가 당시 한국에서 미국의 선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전영화를 제작하던 주한미 국공보원(USIS)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연구를 하던 당시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던 식민지기의 선전영화들과는 달리 연구가 미진했던 미군정기와 냉전시기 USIS의 영화 선전을 주제로 연구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마침 하버드-웬칭 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연구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서 자료 조사를 통해 USIS가 한국에서 만들었거나 한국과 관련해서 만들었던 영화 180여편을 발굴하고, 구술 인터뷰와 문헌조사를 더해 박사논문을 썼습니다.

**말씀하신 연구의 관심이나 박사 학위를 받으신 이후의
커리어를 보면, 선생님께서 본인의 연구를 국제적인 지식
교류와 형성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위치 지으시는 인식이
바탕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박사논문을 영어로 작성하신
것도 비슷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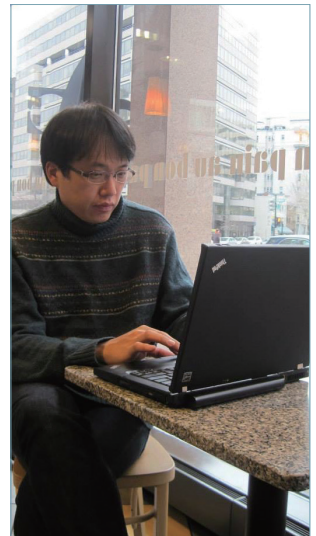
단순히 박사논문을 영어로 작성한 것만 이야기하자면 당시에 약간의 오기랄까 도전 같은 것이기도 했지만, 조금 더 넓혀서 보자면 전세계적인 학문의 장 속에서 저의 연구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동반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버드-옌칭 연구소에서 '동아시아학'의 관점을 접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한국에 대한 학문적 논의들이 한국에서의 연구들과 서구 학계에서 생산되는 지식이 순환되는 방식에 불균형성이라고 할까, 비대칭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서구의 주요한 이론들과 연구결과들은 국내로 소개가 많이 되고 국내연구자들에 의해 자신의 연구에 녹여내는 방식으로 흡수되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서구의 연구자들조차도 이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연구의 성과를 빠르게 접하거나 수용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다 활발한 소통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자면 이러한 시도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서구 학계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비서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목소리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목소리들이 일종의 네트워크로 이어져 우리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서구에 전달되어 비판적 성찰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을 모색해야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USIS같은 경우에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그 지부가 존재하며 활동하던 조직이에요. 미국의 선전기구조로서 각 국가들에서 이들이 수행한 역할과 그 방식들, 그 속에서 만들어졌던 비대칭적, 불균등적 관계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진 서로 다른 나라들의 개별적인 연구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서로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언어의 문제도 중요한 것이구요. 박사논문을 영어로 쓴 것은 그런 의미에서이기도 했습니다. 박사 이후에도 이러한 경험과 문제의식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한국학 혹은 동아시아학이라는 간학제적인 학제와 사회학자로서의 저의 시야 사이에서 연구자로서 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선생님의 세부전공과 지속해오신 연구들이 사회학이라는
학문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사회학이 지금까지 충실하게 일구어온 연구의 분야와 방법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회학이라는 것이 항상

사회학의 영역으로 잘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들을 새롭게 사회학의 언어로 해석하면서 계속 경계를 넓혀온 지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화를 가지고 사회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낯설어 하는 분들도 많았고, 영화를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것을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시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제 연구는



어쩌면 기존의 사회학이 설명의 대상으로 규정했던 영역의 바깥에 있는 것들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조금 더 나아가서 영상은 그 자체로 누구에게나 똑같은 언어로 번역되지 않고, 그것이 소비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매번 의미가 달라지고 상이한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유동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처럼 쉽게 잡히지 않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적 삶을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는 언어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새로이 만들어 나가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의가능한 '사회학적 접근'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사회학이라는 분과가 과제와 가능성이 동시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자신의 연구 관심을 탐색하고

고민하는 학문후속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먼저 자신의 연구를 어떻게 위치짓고 다른 연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문 분야 전체와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독립된 연구자로서 단기적인 결과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구성해나가는 거시적 안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문후속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넘어서기 쉽지 않고 결국 모두가 맞닥뜨려야하는 자기와의 싸움이지만, 이러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동시에 이를 구체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균형감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사를 거치면서 마주했던 과제와 그것을 나름대로 극복해온 방식이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이러한 길을 헤쳐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 연구 소식

권현지 교수

논문으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남녀대졸자 노동이력으로 본 경제위기전후 청년노동시장의 구조변화”(이상직, 김이선 공저)를 『경제와 사회』 118에 게재하였고, “여성변호사 경력구축 과정에서의 젠더 불평등”(권혜원과 공저)을 『한국여성학』 34(2)에 게재하였다. 단행본으로는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푸른길)을 공저하였다. 학회발표로는 <한국 정치학회 춘계 학술회의>에서 “청년의 ‘사회 혁신’ 실험과 대학의 사회학 교육: 청년의 눈으로 청년을 본다는 것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2018년 6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SASE>에서 “Korea’s Integration to Garment Global Value Chains and its IR implications (with Lee, J.)”과 “In the era of alternative facts: Maintenance and Transformation of Professional hierarchy in a News Organization(with Nho, S.)”를 발표하였으며, 2018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ILERA>에서는 “Organized Session: HRM across the Triad - learning from best practice: but whose best practice?” 중 “HRM in South Korea”를 발표하였다.

김석호 교수

“가족과 사회적 관계가 탈북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김유연, 손명아 공저)을 『한국인구학』 41(2)에 게재하였다. 『한국 민주주의의 질』(박영사)을 출간하였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시대 한국의 복지와 행복지표 측정』(집문당)을 공저하였다. 발표로는 2018년 3월 4-5일에 <The Third Conference of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Social Well-being Studies: Social Well-being, Social Policy and Social Transformation>에서 “Patterns of Social Support Networks in East Asian Countries”를, <덕산포럼>과 <안민포럼>에서 “공론조사의 경험과 한국의 민주주의”를, <The 113th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에서 “The Structure of Civil Society: Does Trust Matter”를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다수 발표하였다.

김홍중 교수

논문 “Survivalist Modernity and the Logic of Its Governmentality”를 *International Journal of Japanese Sociology* 27(1)에 게재하였다. 2018년 7월 19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에서 “Weberian Approach to the Theology of Yong-Gi Cho”를 발표하였다.

박경숙 교수

『네트워크로 바라본 아시아』(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를 공저하였다. 2018년 5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된 <ISA RC28(사회이동과 사회계층 분과) 서울모임>에서 “Precarious Elderly in Korean Society: The Effects of Family Change and Segmentation of Labor-Welfare on Poverty Risk and Inequality of Korean Elderly People”로 기조발표를 하였으며, 6월 28일 한국사회학회/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전환기, 한국사회와 사회정책 비전 학술심포지엄>에서 “인구를 통해 본 한국사회와 삶의 대전환”으로 기조발표를 하였다.

박명규 교수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한울)을 공저했다. 2018년 5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미래 학술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를 하였다. 6월 22-23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Harvard Yenching Institute 9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참가하였다. 7월 12-14일 독일 튀빙겐 대학에서 개최된 <Translation Transformation in Modern Korea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발표를 하였다. 2017년에 공저한 『중국 일상 속 북한 이미지』가 2018년도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한독통일자문회의>의 한국 측 위원으로 재위촉되었고, <한국 Harvard Yenching 학회>의 차기 회장으로 피선되었으며, 4월에 개최된 서울대 교직원 <수목화전시>에 매화도 2점을 전시하였다.

이재열 교수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한울)과 『아픈 사회를 넘어: 사회적 웰빙의 가치와 실천의 통합적 모색』(21세기북스)을 공저했다. 발표로는 2018년 3월 4-5일에 <The Third Conference of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Social Well-being Studies: Social Well-being, Social Policy and Social Transformation>에서 “Dimensions of social well-being among Asian countries: Personal, relational, and societal aspects”를 발표하였고, 6월 29-30일에 <The Forth Conference of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Social Well-being Studies>에서 “Social Well-being, Development, and Multiple Modernities in Asia”를 발표하였으며, 7월 26일 <N포럼>에서 “초연결시대와 사회혁신”을 발표하였다.

서이종 교수

2018년 6월 『호스피스.완화의료 : 의미있는 삶의 완성』 (현문사)을 공저하였다.

송호근 교수

2018년 4월 『혁신의 용광로』 (나남)를 출간하였다.

장경섭 교수

“가족자유주의와 한국사회: 사회재생산 위기의 미시정치경제적 해석”을 『사회와 이론』 32(1)에 게재하였고, “사회 등진 자본주의, 사회재생산 접은 친밀성”을 『월간 복지동향』 235에 게재하였다. 또한 2018년 6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세계사회경제학회〉에서 “Financialization of Poverty in Post-Developmental Korea: Consumer Credit Instead of Social Wage?”를 발표하였고, 2018년 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세계사회학회〉에서 “Internal Multiple Modernities: The Korean Aperture”와 “Complex Culturalism Vs. Multiculturalism: The South Korean Approach to Cosmopolitanization”를 발표하였다.

정근식 교수

『발트 3국의 탈사회주의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연구원)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미래』 (진인진)를 공저하였다. 2018년 5월에는 소록도병원 개원 102주년을 맞아 한센인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한 6월에는 〈황해문화 100호 발간기념 국제 심포지움〉에서 “냉전분단 경관과 평화: 철책과 전망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정일균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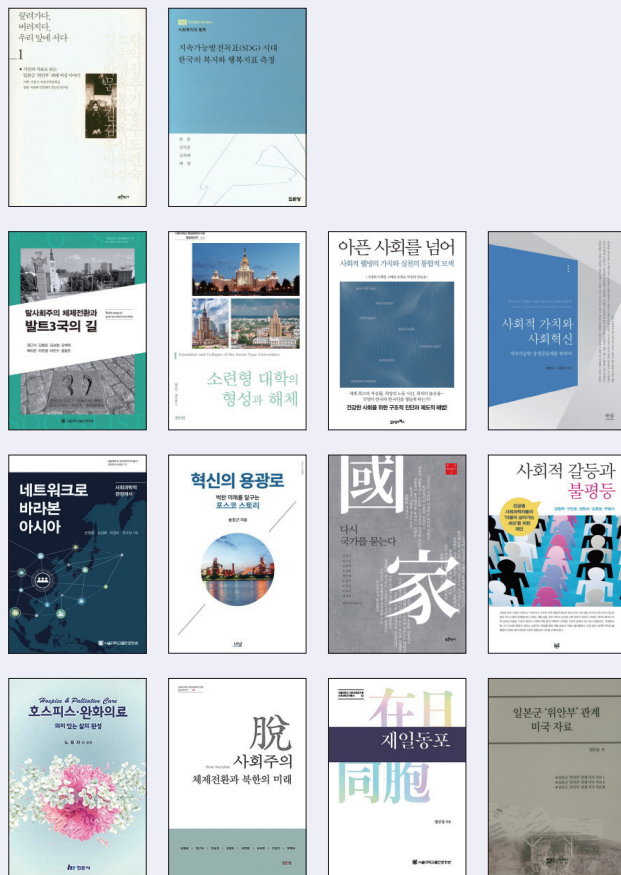
2018년 6월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조선유학사'와 조선유학의 식민주의적 변용”을 『退溪學報』 143에 게재하였고, “다산 정약용의 '천' 개념에 대한 재고찰”을 『茶山學』 32에 게재하였다. 2018년 6월 15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회 서계학술세미나〉에서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의 '논어사변록論語思辨錄' 연구”를 발표하

였다. 이 외에도 『신정보판 다산 사서경학 연구』 1,2권(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을 출간할 예정이다.

정진성 교수

2018년 4월 경찰 ‘성평등 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1,2권 (푸른역사)을 출간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관계 미국 자료』 1,2,3권 (도서출판선인)을 출간하였으며, 『재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를 출간하였다.

[교수신간]



학과 소식

[2018학년도 1학기 개강총회 및 장학금 수여식]

2018년 3월 8일 저녁 6시 신양관 407호에서 사회학과 개강총회 및 발전기금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1부에서는 박숙미 서울시 인권보호담당장의 인권교육이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소개와 사회학과 운영위원회 및 대학원 자치회 활동보고,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김병용 동문회장은 나눔장학금을 임재연(학부 13)학생과 윤지원(석사 18)학생에게 수여했다. 또한 '함께 나누는 한국'을 기치로 하여 제3세계 출신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수립된 최삼현 장학금은 해밀튼(박사 13)학생에게 대리 수여되었다. 이 자리에는 학부 신입생 및 재학생과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학과 교수, 김병용 동문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2018학년도 1학기의 시작과 장학금 수여를 축하했다.



[정근식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정근식 교수가 2018년 5월 17일 한센인의 날을 맞아 국립소록도병원과 한국한센총연합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제15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2주년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장덕진 교수 한타 사회과학대학 우수교수상 봉사상 수상]

장덕진 교수가 2018년 3월 8일에 사회과학대학 우수교수상 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송호근 교수 이임]

송호근 석좌교수가 2018년 7월 17일 부로 사임했다. 1994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에 전념해오며 특히 노동과 복지, 불평등, 사회정책 분야에서 학문적, 사회적 업적을 이룬 송호근 교수는 2018년 2학기부터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의 석좌교수로 부임할 예정이다.

[정진성 교수 퇴임]

정진성 교수가 2018년 8월 30일 부로 퇴임할 예정이다. 사회학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진성 교수는 1996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에 전념해왔으며, 특히 인권과 여성 분야에서 학문적, 사회적 업적을 이루었다.

학부 소식

[학부 운영위원회 소식]

2014년 1월 첫발을 내딛은 학부운영위원회는 2017년 11월 선출된 박상욱(학부 17)이 대표를 맡아 2018년 1학기에도 많은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사회학과에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을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사회학과 OT와 새로 1년을 꾸려나갈 위원들을 모집했던 2월을 시작으로 운영위원회는 3월 초 개강총회 및 장학금 수여식, 4월 초 사회학과 전공연수회를 준비하여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또한 5월부터 6월까지 운영위원회는 학부생들의 평소 전공 관련 민원들을 수합하여 학과장 박경숙 교수와 수업에 관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현재 운영위원회는 2학기에 있을 사회학 주간을 준비하고 있다.

[학부 전공연수회 개최]

자세한 설명은 5면 참조

[<동아시아 사회> 수업개설]

자세한 설명은 6면 참조

대학원 소식

[도시사회학 세미나 수업 특강 개최]

2018년 1학기 대학원 〈도시사회학 세미나〉 수업(김석호 교수)은 한국의 도시,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도시사회학적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7번의 특별 공개 강연을 개최하였다. 광운대학교 김백영 교수, 부산발전연구원 김미영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임동근 교수, 전상인 교수, 서울연구원 변미리 선임연구위원, 한성대학교 박우 교수, 한양대학교 서현 교수를 연사로 모시고 특강 및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도시사회학 수강생들과 특강 참가자들은 한국의 도시, 서울이라는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고 발표회 개최]

2018학년도 1학기 사회학과 대학원 학위논문 초고 발표회가 16동 상백헌(548호)에서 5월 4일과 5월 31일, 6월 4일, 8월 24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초고 발표회에서는 총 8명(석사과정생 3명, 박사과정생 5명)이 학위논문 초고를 발표하였으며, 여러 대학원 재학생 및 학과 교수들이 참석해 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석사학위논문 공개 프로포절 및 초고발표회]

최정배	2018년 5월 4일	한국 사회학 입문서에서 나타나는 사회학 정체성의 변화
신민선	2018년 5월 4일	노화에 대한 의료지식의 사회적 구성 - 노화방지의학을 중심으로
왕지아	2018년 6월 4일	Cultural assimilation of the second generation immigrants in Sweden, the case of gender role attitudes

[박사학위논문 공개 프로포절 및 초고발표회]

전원근	2018년 5월 4일	냉전기 한국의 지정학적 상상과 냉전경관의 형성: 1970-1980년대 '남침땅굴'과 '서해5도'를 사례로
임재성	2018년 5월 31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전략적 사법적극주의
김대욱	2018년 5월 31일	중국에서의 기업인권책임 규범의 확산에 관한 연구
현민	2018년 6월 4일	지역경제통합의 사회적 장과 지역개발협력: NAFTA, ASEAN, MERCOSUR 비교 연구
김재형	2018년 8월 24일	질병 낙인 및 차별, 그리고 무균사회: 한센병을 중심으로

[연구실 환경개선사업 실시]

2018년 8월에 대학원생 연구실 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되었다. 8월 마지막 주에 진행된 이번 연구실 환경개선사업은 각 연구실 환경개선위원회 의결을 모아 각 연구실의 노후된 프린터, 스탠드, 의자 등을 교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구매를 진행하였다.

[대학원 자치회 사업 - 도시락과 사회학]

자세한 설명은 7면 참조

동문소식

[심보선, 이동준 동문 문학주간 참가]

심보선(88학번), 이동준(92학번) 동문이 2018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 일대 및 전국 문학 행사장에서 한국문화에 술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한국문학, 오늘〉 문학주간 9월 3일 행사 〈작가 스테이지〉에 함께 연사로 무대에 오른다. 해당 행사는 3일 19시 30분 예술가의 집 예술나무 카페에서 열린다.

[2018년 동문걷기대회 개최]

자세한 설명은 4면 참조

※ 사회학과 소식지에서는 지속적으로 동문들의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명예교수 소식

[김경동 교수]

2018년 5월 18일 열린 미래학회 월례회에서 “음양변증법적 미래연구의 논리체계”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6월 23일에는 일본 교토 도시샤 대학에서 열린 국제적인 간학문 학회 SASE(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ocio-Economics) 30주년 연차회의의 〈Presidential Author-Meets Critics Session〉에서 신간 저서 『Korean Modernization & Uneven Development: Alternative Sociological Accounts』(Palgrave Macmillan)를 소개하고 비평을 청취하는 모임에 초청받아 참가하였다. 7월 3일에서 5일까지는 국제과학연맹이사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와 국제사회과학이사회(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가 통합하여 국제과학연맹(International Science Council)으로 새로이 출범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통합총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사회 공헌활동으로 7월 17일 “자유학기제를 맞은 중학교 학생들에게 학술원 회원과의 만남을 통해 학문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학술원 회원과의 만남”에서 특강 및 토크쇼를 진행하였다.

[신용하 교수]

단행본으로 동아시아 최초의 ‘고조선문명’에 대한 이론을 최초로 정립한 연구인 『고조선문명의 사회사』(지식산업사)를 간행하였으며, 평론 ‘愛國歌 作詞는 누구의 작품인가?’를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97에 게재하였다. 2018년 2월 5일에는 서울대학교병원의학역사문화원 주최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강당에서 “한국민족의 기원과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으며, 2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열린 〈3·1운동 99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3·1 독립운동의 주체세력과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였다. 그 외에 2월 20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문화회관 강당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최로 “한국 독도영유의 객관적 증거와 동아시아 평화”를 주제로, 4월 10일에는 홍사단 본부 주최로 홍사단 강당에서 “도산 안창호와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제목으로, 6월 12일에는 안중근아카데미의 주최로 안중근기념과 강당에서 “안중근 의사의 구국활동과 그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7월 18일에는 한국언저니어링협회(KEA)의 주최로 웨다톤호텔 강당에서 “한국민족의 기원 및 형성과 고조선문명”에 대해서, 7월 25일에는 제주 중문신라호텔 강당에서 21세기 한국 경영인 클럽의 주최로 “한국인과 ‘홍익인간’ 이념”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다양한 분야와 주제에 걸쳐 특강을 하였다. 4월 11일에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신용하문고〉가 설치된 것을 기념으로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사회학사와 책(문고)”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다.

[임현진 교수]

2018년 5월 8일 제27회 수당상(상금 1억원)을 수상하였으며, 6월 15일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저서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돌아보다』(임현진 외 저, 진인진)와 『한국 시민사회를 새롭게 하라』(임현진 외 저, 진인진)를 출간하였으며, 각각 “서론: 광복 70년 한국: 회고와 전망”과 “변화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과제와 전망”을 집필하여 수록하였다. 이외에 논문 “How

to Study Capitalism in Asia?: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을 *Asia Review* 7(2)에 게재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벌였다. 6월에는 중국 길림대학교 사회학과 초빙교수로 여름학기 강의를 맡는 등 교육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한상진 교수]

단행본으로 『Asian Traditions and Cosmopolitan Politics: Dialogue with Kim Dae-jung』(edited by Han Sang-jin, Rowman & Littlefield: Lexington Books, USA)의 편집인을 맡아 출간하였다. 논문으로는 “Historical Context of Social Governance in East Asia: The Challenge of Risk Society”를 *Korea Journal* 58(1)에, “Comparative Study of Neighborhood Community Reconstruction in Seoul, Beijing: An Action-Theoretical Approach” (Young-Hee Shim, Jung-su Kim과 공저)를 *Korea Journal* 58(2)에 게재하였다. 국내 학술 발표로는 2018년 5월 29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The Metamorphosis of the Korean Peninsula〉에서 “The Metamorphosi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Kim Dae-jung's Political Philosophy”라는 제목으로, 5월 31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Populism and Democracy〉 컨퍼런스에서 “Professional Politics and Populism: How do they differ, where does the Danger to Democracy lie?”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국제 학술대회 발표로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World Congress of Sociology〉의 7월 17일 〈Populism and the new Political Order〉 세션에서 “Economic Crisis and Populist Response: A Comparative look at the Potential Threat to New Democracies”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같은 행사의 7월 19일 〈Revising Weber and Habermas on Rationality and Compathy from Asian Perspective〉 세션에서 “Weber's Concept of Richtigkeitsrationalitaet and Rationality of Compathy: The Case of Filial Piety and Funeral Ritual Reform in China”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외에 “A Joint Study on the Confucian Subjectivity and Gover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Foucault's 'Dispositif' and Habermas' 'Discursive Testing'” 연구를 위해 2018년 7월 20일에서 9월 20일까지 프랑스 액상프로방스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홍두승 교수]

논문으로 “Age diversity, group organis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and group performance: Exploring the moderating role of charismatic leadership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Seong, Jee Young과 공저)을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SSCI)에 게재하였으며, “Some historical notes”(Caforio, Giuseppe와 공저)를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the Military』(2nd edition, edited by G. Caforio & M. Nuciari,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에 수록하였다. 학술발표로는 2018년 6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조사연구학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에서 “Collective personality fit and its diversity: How effective they are in predicting relationship conflict?”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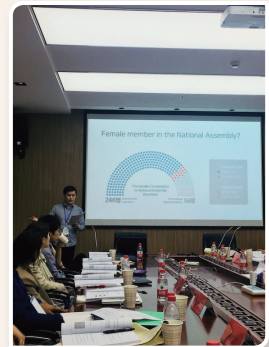
사회발전연구소 소식

[행사]

사회발전연구소는 2018년 상반기에도 다채로운 주제로 학술 및 정책토론 행사를 개최하고 참가했다. 특히 지난 6월 19일에 있었던 'Workshop on Deliberative Polling and Signing Ceremony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Between ISDPR,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DD, Stanford University'에서 공론조사의 창시자인 스탠포드대 피시킨(James S. Fishkin) 교수와 몽골 개헌 공론조사를 주도한 바 있는 콤보자브(Zandanshatar Combojav) 장관이 참가하여 발표했으며, 사회발전연구소와 스탠포드대 숙의민주주의센터(CDD)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민주주의적 숙의과정에 대한 학문적 논의 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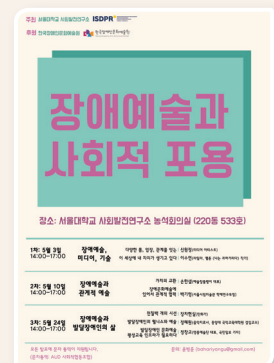
이외에도 5월 중국 상해대학교에서 있었던 'The 5th Joint Seminar on Asian Agenda for Young Scholars from China, Japan & Korea'에서는 김석호 소장과 권현지 교수 및 연구소 조교 5명이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교류하였으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주윤정 선임연구원)의 일환으로 개최된 '장애예술과 사회적 포용'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네트워크'에서는 소수자 예술정책의 활성화에 대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사회문제의 적극적인 학술행사를 이어나갈 예정으로, 현재 '국가정책포럼' 및 '동아시아 사회조사 국제학술회의(가제)'등이 개최를 앞두고 있다.



[연구]

사회발전연구소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이어져오는 계속사업들과 2018년 상반기에 수주한 신규 사업들로 현재 14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시작한 사업들에는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인구특성별 1인 가구 현황 및 정책대응 연구', 경상남도 거제시 연구용역 '2018년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자료수집 용역',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동아시아 가족 국제 비교연구' 및 '동아시아 문화와 세계화 국제 비교연구' 등이 있다. 이외에도 충청남도 제천시를 통해 청년연구 용역 수행을 앞두고 있으며, 계속해서 연구 수주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발전기금 출연 및 약정현황과 사용내역 (1986년~2018년)

아래는 1986년 이래 현재까지의 사회학과 발전기금 출연 및 약정현황과 사용내역이다. 발전기금 약정현황은 개인과 단체로 나누어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다. 발전기금은 장학금과 학술행사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장학금의 수혜를 받은 학생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사회학과 500동문 월 1만원 구좌 만들기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문은 02)880-8004, 02)871-8146으로 연락하고 농협 079-17-000136 | 신한 100-014-328209 | 우리 1006-601-280134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발전기금본부를 통하지 않은 약정내역이 있거나 누락내역이 있을시 사회학과 사무실(02-880-6402)로 연락바랍니다.

[사회학과 발전기금 단체 및 기관 약정자 명단]

출연자명	약정일	약정금액
한국폴리우레탄공업(주)	1986-12-23	3,000,000
(주)범문사	1996-11-20	20,000,000
금호석유화학(주)	1996-10-04	50,000,000
금호셀화학(주)	1996-10-04	50,000,000
사회학과총동문회	1996-08-23	80,000,000
한국화인케미칼(주)	1996-10-11	30,000,000
사회학과	1999-11-30	102,000,000
KPX화인케미칼(주)	2010-04-23	30,000,000
(주)니움케어	2013-04-17	100,000,000

출연자명	약정일	약정금액
티지인베스트먼트(주)	2013-04-26	40,000,000
종하장학회	2013-03-27	10,000,000
재단법인 필봉장학재단	2015-04-29	1,000,000
사회학과 9학번 일동	2015-12-30	3,000,000
사회학과 92학번 동기회	2016-07-06	3,001,992
(재)동화산업장학재단	2015-03-18	10,000,000
	2016-03-04	10,000,000
	2017-03-03	10,000,000
	2018-02-08	10,000,000

[사회학과 발전기금 개인 약정자 명단]

출연자명	약정일	약정금액
강신표	2016-01-12	5,000,000
강인철	2013-07-02	60,000
	2014-01-15	120,000
	2015-01-02	120,000
	2016-01-25	120,000
	2017-01-02	120,000
	2018-01-03	120,000
김경동	2013-12-16	5,000,000
	2014-10-21	5,000,000
	2017-12-13	1,000,000
김귀옥	2013-09-30	1,000,000
	2014-10-07	60,000
김매경	2015-01-02	240,000
	2016-01-10	240,000
	2017-01-10	240,000
	2018-01-10	240,000
김병현	2013-03-19	100,000
김상준	2003-03-18	100,000
김성목	2013-10-11	840,000
	1994-03-07	50,000
김영범	2013-05-31	1,000,000
김용술	1993-03-22	50,000
김유나	2016-09-19	30,000
	2017-01-10	100,000
김익기	2018-01-10	120,000
	2012-10-26	1,000,000
김일철	1996-10-21	10,000,000
	1999-09-08	20,000,000
김진현	1992-12-28	30,000,000
김헌출	2013-06-03	10,000,000
	2017-03-23	10,000,000
김홍중	2012-07-13	3,000,000
남은영	2013-07-05	1,200,000
류미향	2013-10-14	720,000
박경서	2014-01-02	1,000,000
	2012-07-13	3,000,000
박경숙	2014-12-03	700,000
	2016-01-12	1,000,000
	2017-09-28	300,000
	2018-01-25	1,200,000
박근경	2008-09-23	1,000,000
	2013-10-04	30,000
박기용	2014-01-15	120,000
	2015-01-02	120,000
	2016-01-10	120,000
	2017-01-10	120,000
	2018-01-10	120,000
	2014-04-14	1,000,000
박래훈	1993-11-19	1,000,000
박명규	2012-07-13	10,000,000
박재홍	2013-09-24	1,000,000
박찬호	2016-10-11	1,000,000
박재향	2013-09-12	1,000,000
배은경	2012-07-13	3,000,000
백승욱	2017-02-05	3,000,000

출연자명	약정일	약정금액
서이중	2012-07-13	5,000,000
손창조	2012-12-24	100,000,000
송호근	2012-08-17	3,000,000
	2012-07-13	10,000,000
신경민	2013-10-11	1,600,000
	2013-12-26	1,000,000
신용하	1993-12-09	100,000
	2010-08-12	1,000,000
	2015-11-13	10,000,000
신의항	2001-07-07	5,000,000
심갑섭	1992-05-29	50,000
심계진	2016-04-18	100,000,000
	2014-05-28	70,000
안계춘	2015-01-02	120,000
	2016-01-25	120,000
	2017-01-25	120,000
안창호	2018-01-25	120,000
	2012-11-15	300,000
양규모	2015-10-12	300,000
	2016-01-25	1,200,000
	2017-01-25	1,200,000
	2018-01-25	1,200,000
양현아	2016-03-21	10,000,000
오석근, 최계하	1997-02-28	50,000,000
유영근	2016-06-06	1,800,000
윤순진	2013-06-13	1,000,000
윤신목	2013-09-25	600,000
윤정로	2016-12-20	1,000,000
	2016-03-30	270,000
은기수	2017-01-25	360,000
	2018-01-25	360,000
	2018-01-25	360,000
	2018-01-25	360,000
이각범	2014-01-23	1,000,000
	2018-03-12	3,000,000
이만갑	2001-03-22	2,000,000
이재열	2012-07-13	10,000,000
이조영	2017-12-29	30,000
	2018-01-08	360,000
이주현	2013-03-12	50,000
	2016-04-07	90,000
이준구	2016-04-07	90,000
	2017-01-10	120,000
	2018-01-10	120,000
	2013-02-13	50,000
이준섭	2013-05-22	1,000,000
	2013-05-22	240,000
이채규	2017-12-27	300,000
이철희	2017-12-27	300,000
이해찬	2013-07-04	1,750,000
이형범	2013-10-02	3,000,000
	2007-04-13	10,000,000
임현진	1996-09-18	5,000,000
	2012-07-13	10,000,000
	2014-07-21	20,000,000
	2012-07-13	5,000,000
장경섭	2012-07-13	5,000,000

출연자명	약정일	약정금액
장덕진	2013-02-19	5,000,000
장태평	2013-03-22	10,000,000
정광호	2017-04-04	5,000,000
정근식	2014-12-10	3,000,000
	2012-07-13	5,000,000
정민호	2008-09-23	1,000,000
정병대	2017-07-20	4,000,000
정삼봉	2012-12-24	2,000,000
정일균	2012-07-13	3,000,000
정정자	1993-10-27	100,000
정진성	2012-07-13	10,000,000
제정임	2013-03-21	5,000,000
조병희	2016-03-29	2,000,000
조옥희	2013-09-25	1,210,000
조은경	2013-10-14	1,000,000
조원욱	2018-04-02	270,000
조혜정	2015-04-01	1,800,000
좌용식	2013-10-14	2,000,000
	2016-04-14	100,000
최경원	2017-01-10	120,000
	2018-01-10	120,000
	2013-06-03	1,000,000
한신갑	2012-06-19	3,000,000
故 허재영	2015-06-10	2,000,000
홍두승	2012-07-13	10,000,000
홍두표	2013-10-24	240,000
후원자00289	2013-03-08	90,000
	2014-01-15	120,000
	2015-01-02	110,000
	2018-03-21	270,000
후원자00327	2013-10-11	1,500,000
후원자00350	2014-02-19	10,000,000
후원자00395	2014-10-06	20,000,000
후원자00668	2018-04-07	300,000

발전기금 사용내역 (2018년 3월~8월)

[대학, 대학원 연구 활동비]
세미나지원금 등

[근로장학]
학과소식지 : 윤병훈(석사 17), 나윤영(석사 18)

[장학금]
나눔장학금: 윤지원(석사 18), 임재연(학부 13)
단보 심계진 장학금: 전원근(박사 10)
최삼현 장학금: 로버트 해밀턴(박사 13)

[학술 및 학과활동비]
학부 운영위원회 지원금